

# “사교육 조장 절대 아냐”

정규편성 MBC ‘공부가 머니?’ 해명과 각오

교육 현실에 대한 다각적 접근방법에 관심

교육비 줄이고 학업능률 올리는 솔루션 제시



“사교육 조장, 홍보 방송 절대 아닙니다. 정규 방송 한 번 지켜 봐주세요.”

MBC ‘공부가 머니?’의 선혜윤 PD와 최유정PD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삼양동 MBC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부가 머니?’는 지난 8월 2부작 파일럿 예능으로 처음 선보인 후 교육 현실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방법이 관심을 모으며 정규 편성이 확정됐다. 교육으로 고민이 많은 대한민국 부모님들과 자녀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올바른 교육 정보와 방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슬데없이 지출되고 있는 교육비는 확 줄이고, 학업능률은 올리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파일럿 방송 당시 사교육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절대로 사교육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아니다. 파일럿 방송 당시 임호씨 부모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사교육을 강조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3회까지 녹화했는데 사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입시에 대해 다루지만 초등학생 부모의 막연한 불안감 등 다양한 고민을 다룬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직업과 관련한 고민 등이 있다. 입시를 교육의 정점이나 목표로 보고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유정PD도 “파일럿 첫방송에서 사교육 고민이 있는 출연자여서 사교육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후에는 수시나 정시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진 출연자들을 모시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입 고등학생,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아이 등 각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고민을 다룰 예정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방송에 등장하는 여러 교육 방법이 홍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PD는 “첫 회 때 연산 문제집이 화제였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방송이 되고 피드백을 보니까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정보더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서 특정 학원, 문제집이 공개되는 것은 최소화하겠지만 마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부분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든 ‘공부가 머니?’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도 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제

일 큰 걱정이다. 의도하지 않게 특정 인물이나 브랜드를 알리는 그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방송에 출연하는 컨설턴트들을 홍보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규 방송이 나오면 한 번만 바뀔다. 컨설팅을 홍보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런 염려는 방송을 보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컨설턴트는 고정 출연자가 아니라 주제에 맞게 다양한 사람을 섭외하려고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선혜윤PD 역시 프로그램 연출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다고.

선PD는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는 입학할 때 한글을 못 떴고 갔다. 교육부 방침도 한글을 못 떴어도 된다길래 그랬다. 점점 단극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학습지를 과도하게 시킨 일도 있었는데, 파일럿 방송에서 임호씨 편을 보고 나도 많이 느끼고 공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 위해서 따라가라고 내가 지원한 부분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학습지를 나도 많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느낀다”라고 전했다.

선PD는 “나도 아이를 키우면서 공감을 한 것이 맘카페, 동네 엄마들이 아니면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 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중학교에 가면 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도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정보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사교육이나 컨설턴트에 혹하게끔 하는 것 같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11월1일 첫 방송.

# 김건모 · 장지연 “5월 말 첫 만남, 돌아가신 아버지 선물”

최근 상견례 속 내년 1월30일 백년가약



언제나 솔로일 것 같았던 ‘국민 가수’ 김건모(51)가 결혼 소식을 알렸다. 톱 가수이면서도 항상 유쾌하고 영롱한 모습으로 친근함까지 뽐냈던 그것기에, 지인들과 팬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김건모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신부는 과연 누구일 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13세 연하의 미모의 피아니스트 겸 작, 편곡가 장지연이었다. 장지연은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실용음악 및 작, 편곡을 전공한 뒤 상명대 뉴미디어음악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2009년에는 가수 이마자 데뷔 50주년 타이틀 곡인 ‘내 삶의 이유 있음’을 아버지 장욱조와 함께 작곡했고, 2011년에는 앨범 ‘두나미스’를 발표했다.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 중인

김건모와 장지연은 내년 1월30일 결혼식을 올린다.

김건모와 장지연이 결혼을 앞뒀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난 10월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처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연부터 부부의 연을 맺기로 결심한 이유 등을 유쾌하게 들려줬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지금 까지 알려진 1년여가 아닌, 5개월 전인 올 5월 말이었다.

장지연은 “(김건모의) 아버님 돌아가시고 5월 후인 5월 말에 오빠(김건모) 콘서트 뒤풀이 자리에 처음 만났다”라며 “저도 알고 오빠도 아는 언니랑 원래는 뒤풀이 자리와 3분 거리 정도 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언니가 우리 둘이 어울리겠다고 생각해 뒤풀이 자리로 데려가서 소개해주었다”라고

말했다.

장지연은 “처음 오빠를 봤을 때 조금은 측은한 느낌을 느껴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후 2, 3번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없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 오빠가 제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다”라며 미소 지었다.

장지연은 “오빠 마음에 드는 술 친구도 되고 싶어서 소주를 오빠한테 배웠다”라며 웃었다.

김건모 역시 예비 신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건모는 “제 성격을 제가 잘 알기에 처음에는 (예비신부들) 밀어내려 했다”라면서도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 느낀 날, 바로 어머니(이선미 여사)에게 데려갔는데 싱크대에서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는 등 두 분이 죽이 너무 잘 맞았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라며 웃었다.

김건모 장지연 커플은 결혼 뒤에는 봉사 활동을 하며, 사랑을 주위와 나누고 싶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건모는 “와이프가 생기면 봉사 활동을 하고 싶었다”라며 “우리 둘이 차과버스, 마용버스 마련해 동생들과 시골에 가서 봉사하고 싶고, 우리를 원하는 데가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지연도 김건모와 뜻을 함께했다. 장지연은 “오빠의 뜻에 따르면서 재밌게 봉사 활동하면서 살고 싶다”고 거듭었다.

# 김이나x헤이즈, ‘슈가맨3’ 새 MC 합류

유재석 · 유희열과 호흡

작사가 김이나와 가수 헤이즈가 ‘슈가맨3’의 새로운 MC로 합류했다.

오는 11월 말 방송되는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3’ (기획 윤현준·연출 김학민, 이하 ‘슈가맨3’)는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시대를 풍미했다 사라진, 이른바 ‘슈가맨’을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시즌1, 2를 거치며 무려 124 팀의 추억 속 가수들을 소환했고 최고 시청률 6.3%(시즌2, 18년 4월8일 방송)를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슈가맨3’의 MC로는 유재석, 유희열과 더불어 김이나, 헤이즈가 출연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슈가맨3’는 트로트 가수 겸 드러머로 절찬리 활동 중인 유재석, 뮤지션 유희열에 작사가 김이나, 가수 헤이즈까지 4MC 음악인 라인업을 완성해 더욱 풍성해진 음악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이나 작사가는 시즌 1에 함께했던 원년 MC다. 제작진은 “이전에 함께 했던 만큼 투유와의 호흡은 물론, 새로운 MC 헤이즈와의 중간다리 역할도 해줄 것”이라며, “가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중들과 따뜻한 공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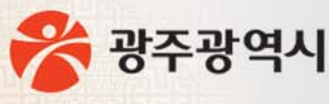




이끌어줄 MC 김이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합류하게 된 헤이즈에 대해 제작진은 “시즌3를 시작하며 음악적 깊이를 더해줄 MC를 고민하던 중 실력과 아티스트 헤이즈를 섭외하게 됐다”며, “그가 추억의 명곡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프로그램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광주광역시

<b>일시</b>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b>장소</b>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b>내용</b>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b>문의</b>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